



드림 제주 21

Dream JEJU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7 가을

vol.18

상상이상(공감)

제주에 산다는 것

이심전심(소통)

제주의 바람, 그리고 바다

각양각색(창조)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하다



누님의 달

나기철

열여덟에 바라보던 달은
밀물 밀리듯
썰물 쏠리듯
그런 그리움의 달,
서른셋에 바라보던 달은
아파, 그냥 꽃송이 하나
뚝, 떨어지던 달인데
마흔아홉 되어
바라보는 저 달은
그리움도 삭아지고
그냥 고요한 바다 되어
어머니 같은
누님의 달이다.

나기철 시집 '몽개구름을 뭉개고' 중에서



Contents

2017. Autumn Vol.18

02 사진과 시 | 나기철

06 2017 가을호를 발간하며 | 신관홍

상상이상 - 공감(共感)

제주에 산다는 것

10 신성장동력 발굴, 창업지원, 관광상품 개발 등
산업구조 개편해야

14 제주에 불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 김동욱

16 제주의 도시재생 1년과 그 이후 | 이승택

제주 속으로

20 오름의 생태가 살아있는 숲길 이승이오름

이심전심 -소통(疏通)

제주의 바람, 그리고 바다

36 흔들리는 '바람' | 정홍남

28 활기 가득한 시장 속 삶의 이야기

32 제주도과 미래해양전략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선택 | 주강현

34 제주 바다에서 미래를 보다 | 박창범

제주어 기림 사진 만화 이왈

36 기림을 재미있게 보며 제꽃말 훈디

곤곡 씨어보게마삼



표지이야기 |
활기 가득한 시장 속 삶의 이야기
20여년을 수산물과 함께 한 「우리 회 수산」

각양각색 – 창조(創造)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하다

- 42 대중관광을 넘어 오버투어리즘의 시대,
제주관광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강성일
- 46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면 | 전혜민

제주어로 읽는 산문

- 48 제주 관광, 다시 생각해 볼 때 | 김창집

문화리포트

- 52 한여름의 섬, 제주에서 울리는 금빛 관악의 소리 | 오수정

팩트 체크

- 56 입시제도의 다변화, 학생 수 감소라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교육을 생각한다 | 김광수

건강을 지키자!

- 56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 가을의 불청객 탈모 | 고태현

청렴한 제주

- 58 청이와 렬이의 청렴이야기 | 홍성보

알고 싶어요

- 60 제주 감귤, 성장기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 이경용
- 62 10브릭스 균일당도 감귤 생산관리체계
연구와 지도 중요 | 현진성
- 64 제주형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의 작가

- 66 제주의 여인들 | 고보형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관홍 발행일 | 2017년 (가을호 통권 제18호)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 064-741-2235 팩스 | 064-741-2219 편집인 | 고창덕 사무처장 편집장 | 박시영 총무담당관 편집위원 | 양운학, 김형미, 김명선, 이은선, 고윤석, 김선심, 임정현, 이수향, 한중범, 오수정, 김승언, 고기안, 백상규 디자인·인쇄 | 주식회사 디자인플레이 751-644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드림제주21”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3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 부여, 대한민국 지방분권 성공의 길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어느새 가을이 찾아 왔다. 지난여름의 폭염을 생각한다면, 가을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않을까 걱정했는데, 폭염을 딛고 찾아온 가을이라 더 정겹고 반갑게 느껴진다. 이 가을에, 제주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단언컨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법적 지위 확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13일, 우리 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번 건의문의 내용은 의회차원에서 지난 8월 16일 도의원 12명, 외부전문가 20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를 구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강화 및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정책세미나와 두 차례에 걸친 자치분권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도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그 의의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그 성공 사례 확산을 통해 분권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0월 14일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 등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는 정부계획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006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월 21일 공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1일 도민들의 기대와 국내외 주목을 받으며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1년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특별자치 시범도를 운영한 결과 인구와 관광객 수의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 징수규모가 약 세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신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권한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의 이유로 자치분권 시범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었고, 예산지원이 없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이제는 그 오명을 벗고 제주가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전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부여다.

2017년 7월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켰다는 대선공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우리 제주는 그동안 섬지역이라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앞당겨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창(窓)이자, 세계와 어깨를 견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기도 하거니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제주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



상상이상
공감(共感)

제주에
산다는
것





신성장동력 발굴,
창업지원,
관광상품 개발 등
산업구조
개편해야

한국은행 제주본부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감(共感) - 상상이상

제주에 산다는 것



상상이상 - 공감(共感)

제주에 산다는 것



이주 열풍으로 제주도의 순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취업자 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임금이 낮은 관광서비스업종에 취업이 집중되면서 소득은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순유입 인구(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인구)는 5만2,700명이며, 이로 인해 5만3,200명의 취업 효과가 발생했다.

이 중 3만3,300명은 순유입된 인구가 제주에서 취업한 경우이며, 1만9,900명은 인구 증가로 인해 2차적으로 늘어난 취업자 수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35만 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도 6.0%로 전국 평균 1.2%에 비해 5배나 높았다. 연도별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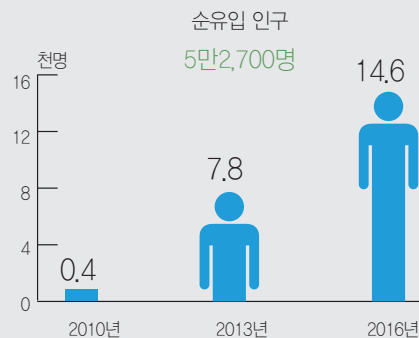
자 수 증가율도 2012년 1.6%에서 2013년 2.9%, 2014년 3.9%, 2015년 5.3%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은 이뤄졌지만, 질적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생산액)은 370만 원 감소했다. 이는 취업이 대부분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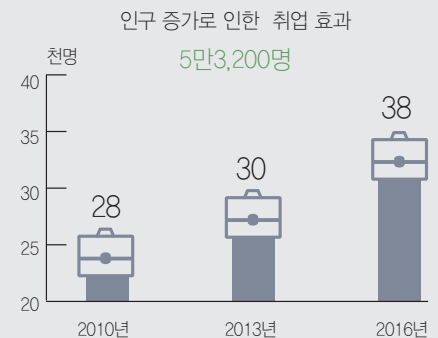
지난해 4월 기준 제주지역 상용근로자 임금은 239만 원으로, 전국(303만 원)의 4분의 3 수준에 그쳤다. 5년 전인 2012년 제주 214만 원, 전국 262만 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영업자의 업체당 영업이익도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제주지역 인구순유입 규모 추이



※ 순유입 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총 취업자수

3만3,300명 순유입된 인구 취업
1만9,900명 인구 증가로 인한 2차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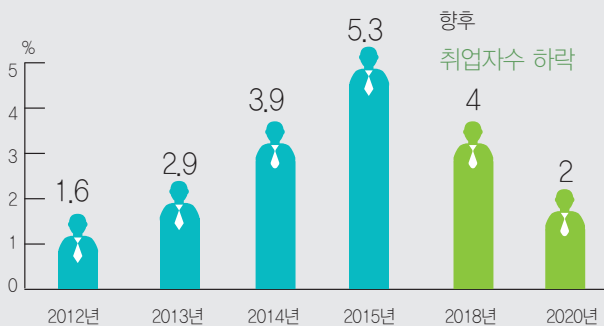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또 관광산업 성장률의 지속적인 축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정체 현상 등으로 기대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등 정주 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제주 지역 인구 순유입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율은 내년까지는 4%를 유지하지만, 2020년부터는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생산성도 기존의 단순 서비스업 구조가 지속되면 전국과의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 창업 지원,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취업자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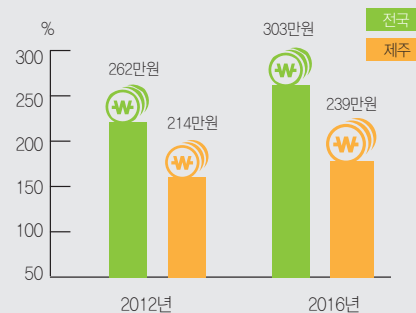
취업자수 상승세



관광산업 성장률 축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정체 현상으로 기대소득 감소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등 정주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구 순유입 규모 감소 이로 인해 향후 취업자수 하락

제주지역 임금

전국의 4분의 3 수준



제주에 불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글 김동욱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젠트리피케이션이 요즘 제주에 문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다양화되고 또 변화하며 발전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일종에 활력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경제적 가치에 집중된 모습을 가질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면서 그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집세나 상가임대료 등이 올라 예전에 내던 임대료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기존에 살던 사람들 혹은 원래 이곳에

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기존 주거 환경이나 상권 수준에서 더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정작 그 혜택을 원래 살던 분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 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 활성화가 결론적으로 원주민들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다.

요즘 제주는 핫 하다. 많은 사람이 오고 관심도 많이 받으면서 보다 더 젊은 층들이 제주를 찾는다. 예전에는 제주하면 한라산, 백



록담, 돌하르방, 해녀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며, 부모님 세대 신혼여행지로 추억하는 장소였다면 지금의 제주는 올레길, 예쁜 카페, 휴식, 웰빙 등과 어우러지며 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다.

이런 제주의 변화는 제주 청년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우리 제주 청년들은 제주라는 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처럼 살아야 했던 시절이 많았다. 육지의 더 많은 기회를 극복해야 했고,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해야 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의 이런 변화는 제주를 떠나려 했던 제주 청년들을 제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붙잡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주의 활력은 육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 육지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주민들과 어울리며 제주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항상 자식들을 성공을 위해 혹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육지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 입장에서 변화된 제주는 다시 자식들을 제주로 오게 하고, 제주의 가치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제주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새로운 가치와 사람들이 몰고 온 제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다. 사람이 몰리며 돈을 벌 수 있다 하니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적은 돈으로도 서로 도우며 그 정도로도 만족하던 우리네 삶이 외지에서 몰려온 환상 같은 모습에 취해지고 현혹되어버렸다. 그리고 착한 사람만큼이나 돈에 물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모두가 돈을 외치게 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은 물신화된 가치와 돈에 있다.

10여 년 가갯세 내며 장사하던 이웃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며 떠나게 하고, 오랜 기간 없는 살림이지만 자족하며 사는 이웃에게 더 많은 집세를 요구하고, 그냥 자연 속에 묻어두었던 오름과 땅을 턱없이 오른 땅값에 개발업자들에게 넘기며 모든 것이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부족했지만, 덕담을 주고받던 사이는 이제는 ‘갑’, ‘을’ 관계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몰랐던 아니 그렇게 큰 가치를 못 느낀 제주의 가치를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대로 간다면 제주의 집값은 턱없이 오를 것이고, 장사 될 만한 곳은 과도한 임대료에 큰돈 가진 사람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가끔 외국 관광지에서 보는 원주민과 자본가의 모습을 제주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긍정적인 부분을 키우고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이며, 이는 물신화된 경제적 성장이 아닌 모

두가 공존하는 공정경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긍정 또는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닌 사회현상이다. 그리고 그 사회현상에 어떤 선택을 하는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합의와 선택에 달려 있다.

다양하고 변화된 좋은 제주 그리고 제주 청년들에게 언제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고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사회를 이루며 공존하는 그런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서로를 인정하며 배려하는 제주 특유의 ‘수놓음’과 같은 나눔의 정신이 다시 한번 새겨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사회적 경제나 공정사회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 제주는 이전만 못 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외곽을 맴돌며 고달픈 제주가 될지도 모른다.





제주의 도시재생 1년과 그 이후

글 이승택 센터장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이 뭐우파?

근 일 년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라는 대답을 한다. 하지만 이 대답을 들은 시민의 표정을 보면서 수많은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단 도시재생이 낯설다. 낯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대체 지속가능한 도시는 뭘까? 하물며 그런 도시를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주에서 도시계획은 미지의 세계다. 본격적인 도시의 연구도, 도시에 대한 논의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도시계획은 도로선을 그리고, 내 땅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면 내 땅값이 올라가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도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하면 얼마나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기는 또한 쉽지 않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저마다의 도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도시에 대한 욕망이 다르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도시재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시재생 아카데미이고, 하나의 주제를 마치 하나의 산처럼 넘어가면서 이해해보자는 취지의 '천 개의 고원' 프로젝트였다. 많은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수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지속적으로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시민이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반면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와 언론의 조명이 많아지면서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아져 갔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자 준비했던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했다. 공통이론과정과 문제해결 과정이 있는 장장 6개월에 이르는 힘난한 프로그램으로 각 20명씩 두 개 반을 모집했는데 이삼일도 지나지 않아 정원이 차서 마감되었다. 도시재생대학은 신청자 모두 쉽게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일정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하고 과제를 마쳐

야 하기 때문에 최종 수료한 시민은 20여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기에 과제를 발표하는 수료식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을 해드리는데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이 지면을 통해 한 번 더 수고하셨다고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근 1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과 한 단계 올라선 전문화된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데는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프로그램 지원 노력이 없었으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센터의 연구원은 계약직이다 보니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상상이상 - 공감(共感)

제주에 산다는 것

“
소통,
도시재생의
핵심 단어이다.
”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오신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센터가 공적 기구인지 아닌지,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공무원인지 아닌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자치단체에 만들어야 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제주에서는 독립성과 창조적으로 활동하도록 민간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리를 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의한 현장지원센터를 겸하고 있다. 아직 도시재생 사업이 제주도 원도심 지역 한 곳뿐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성격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활성화 사업을 구상하여 사업 지역을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와 구분되어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재생사업의 행정 지원은 크게 제주도 도시재생과와 양 행정시의 도시재생부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행정관청에서는 외부 용역으로 진행한 제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주관한다. 그리고 수립





된 각 계획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전문과 함께 행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원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서로 원활히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고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의 입장에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이다. 도시를 관리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사업은 제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다. 그 외에 도시활성화사업과 새뜰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

로 지원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국가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서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개발공사, LH공사, JDC 등 도시 건축 분야의 기관들이 머리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참여하여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통은 도시재생의 핵심 단어다. 소통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도시재생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도시계획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소통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20 트림 (주) 21

상상이상 - 공감(共感)

제주속으로

“

오름의 생태가 살아있는 숲길

이승이오름

”

글 주식회사 디자인플레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승이오름

한라산이 보이는 이승이오름은 이승악(狸升岳), 이생악(狸生岳)이라고 하는데 그 생김새가 살쾅이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승이오름의 입구는 넓고 시원하게 뿔려있는데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에 들어선다. 길가에는 어느새 낙엽들이 쌓여가고 여전히 짙은 녹음을 자랑하는 나무들은 계절을 잊은 듯 서 있다. 두 계절이 공존하는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이승이오름의 가을은 깊어만 간다. 오름은 측화산인 화산 지형으로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걸을 때마다 부딪치는 자잘한 화산토를 밟는 기분 또한 숲길의 매력이다. 특히 화산암과 화산탄을 감싸고 자라는 나무들의 뿌리를 보고 싶노라면 그 생명력과 위용에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단단하게 움켜잡은 뿌리는 나무를 길러 해를 보게 하고 나뭇잎과 줄기는 뿌리를 지탱시키는 에너지를 만든다. 자연의 놀라운 순환은 판근을 통해 그 숭고함을 드러낸다.



자연의 숨결을 따른 생명력

끝없이 높아가는 가을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오름의 아름다움은 절정에 다다른다. 해발 539m, 높이 114m 인 이승이오름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코스로 걷기에 어렵지 않다. 이곳은 기생화산으로 분화구가 있는데 한쪽이 벌어져 그 모습이 말발굽을 닮았다. 숲길은 하천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전형적인 제주 건천의 모습을 보인다. 커다란 바위와 돌들이 물결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승이오름의 등성이에는 상록수와 난대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나무들은 군락지를 이뤄 멋진 절경을 만들고 있다. 토양이 비옥하여 키가 큰 곰솔들이 군락을 이루고 사르레피나무가 그 다음 층을 이루며 동백나무, 새덕이, 후박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삼나무 군락지에는 여름이면 아름다운 산수국들이 숲의 신비를 더한다. 특히 하천 주변부에는 붉가시나무와 모새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식생에 따라 층층이 식물군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제156호 왕벚나무 자생지로도 유명하다.

자연생태 하천 탐방로

이승이오름의 서쪽을 돌아 흘러가는 신례천은 신례리 2리에서 물줄기들이 합쳐져 바다로 이어진다. 신례천변에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바위그늘이 있는데 이를 궤라 하는데 이곳을 화생이궤라 한다. 아치형의 화생이궤 안에는 제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비석도 놓여있다. 1972년 12월 16일에 선광사 신례신도들이 조성하였다. 지금도 신례1리는 물론 남원과 효돈 등의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곳으로 찾는 이가 많다. 동굴의 근처에는 식생도 울창하여 신비한 느낌이 든다. 특히 폭 20~25미터 깊이 3~5미터로 깊게 물이 고여 있는 '해그문이소'는 그 푸른빛이 하얀절벽과 어우러져 숲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뽀뽀하게 우거진 나무와 화산 절벽이 병풍처럼 지키고 있어 한낮에도 해를 볼 수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답게 깊은 오묘함이 있다.

숲에 남아 있는 삶의 흔적들

이승이오름 생태탐방로에서는 옛 제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섬 전체에 쌓였던 고성인 잣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말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하잣성들도 보인다. 농사와 방목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던 돌담들은 아직도 남아 제주의 돌 문화를 보여 준다. 산간에는 나무가 풍부하여 숲을 만들던 숲막터가 있었다. 이승이오름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백탄을 생산하여 군수품으로 납품하고 나머지 흑탄은 표고버섯을 말리는데 사용되었다. 표고버섯은 일본인에 의해 1905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표고버섯 건조장과 숲가마 터는 남아 있지만 세월에 녹아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의 슬픔이 배인 4·3유적지

제주의 어느 곳이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할 만큼 많은 상처를 남긴 4·3의 슬픔은 이곳에도 남아있다. 수악주둔소(4·3유적지)는 1949년에 수악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내성과 외성으로 분리되어 약 250평으로 외성의 회곽은 바깥쪽 높이 3.5m 내벽은 2m 가량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신례리와 하례리는 물론 서귀포시 상호동 주민들까지 동원되어 쌓아졌다. 수악주둔소는 전체적인 둘레와 외성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또한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를 점령한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파 놓은 일본 갱도 진지가 있다. 오름은 제주의 상흔을 품고 계절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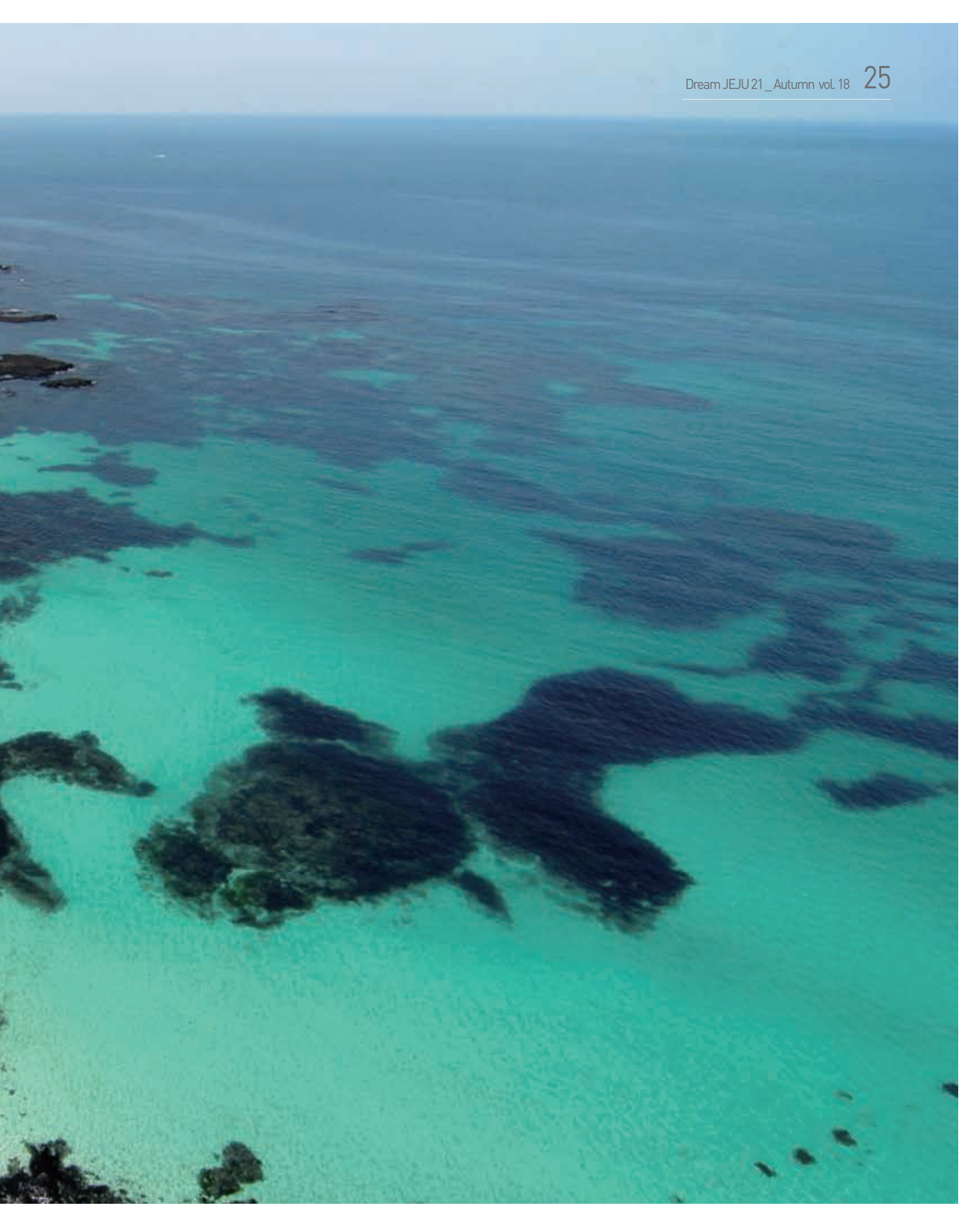
천천히 걸으며 마주한 오름의 숲길

이승이오름의 순환코스는 가벼운 산행만으로도 숲길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풍부한 가을맞이 장소로도 적당하다. 목장지대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어 목가적인 풍경을 볼 수 있고 전망대에서는 이웃 오름들의 평화로움도 즐길 수 있다.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씬하게 자라는 삼나무의 매력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불어오는 바람을 벗 삼아 이승이오름을 걸으며 가을 숲의 신비를 만나보자.

이심전심
소통(疏通)

제주의
바람,
그리고
바다





흔들리는 ‘바람’

글 정흥남 논설실장 / 제주일보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에 서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게 풍력발전이다. 청정에너지 생산의 최적 수단으로 이를 적극 양산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자연경관과 엇박자를 내 결과적으로 자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대 시설물’이어서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선다.

“삼성중공업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보따리 싸고 제주에서 철수했다는 말을 들었다. 어느 시점부터 투자유치는 곧 환경파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굳어졌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환경, 경관, 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이 반드시 분석돼야 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전자는 제주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투자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고태민 제주도의원(바른정당·애월읍)이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5분 발언의 일부다.

후자는 제주의 환경자산을 저해하는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정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의 역시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이 두 지방의원의 발언이 지금 제주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한 의원이 잘못이 결코 아닌,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한 모양에 대한 두 갈래의 인식이다.



전국 해상풍력이 '몸살'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발전은 비단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안으로 이를 둘러싼 파열음 또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나온다.

풍력발전은 태양광에 비해 적은 부지를 사용하고 특히 해상풍력은 해풍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의 핵심 발전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17GW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 가운데 14GW를 해상풍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만능격인 풍력발전이 전국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북지역의 대표적 풍력발전지역인 영양군은 풍력발전 추가설치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환경문제와 소음 때문이다. 부산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해운대 청사포로 이어지는 동해안 해안에 540MW급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해기 해상풍력'사업은 어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은 한 수 더 나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역은 해양관광자원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19개 단지 가중 중

제주는 풍력발전사업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풍력발전에만 반드시 필요한 바람이 풍부한 때문이다. 구좌 행원 풍력발전단지는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 상업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역사'가 됐다.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는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탐라해상풍력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9곳에 이른다. 또 여러 곳이 대기 중이다.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대정·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보고 있으면 제주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진정을 낸 주민들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예정지역은 바다 어초를 조성한 장소이고, 주변에 70곳 양식장에 고용인원만 5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정 해상풍력지구 지정될 경우 변화에 민감한 수산 동·식물의 피해가 볼 보듯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사업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5km 지점에 만장굴과 김녕사굴, 제주 용천동굴, 당처물 동굴 등으로 이뤄진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이 자리 잡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역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지난 7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 육상풍력은 경관 문제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해상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 가치 훼손해선 안 돼

제주의 풍력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변하고 있다. 제주와의 부조화(不調和) 때문이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둥과 그 위에 돌아가는 초대형 프로펠러 형태의 발전기는 그 자체만으로 제주의 고유 경관과 잊박자를 낸다. 물론 일부에선 이 정도쯤은 감내해야 하고 감내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속 모른 소리다.

제주의 중산간 요충지와 해안변을 가로지르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제주의 해묵은 현안이다. 제주의 경관을 해치는 제주와의 부조화라는 이유 때문이다. 풍력발전 시설은 이에 비교가 될 수 없다. 현장에 가보면 그 거대함에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도 송전고압선로는 땅에 묻고 이와 비교될 수 없는 큰 풍력발전 전봇대는 세워도 된다고 우기는 것은 모순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과거 한 때 풍력발전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그도 잠시뿐. 마을 별로 신청이 쇄도하자 이들의 표(票)를 의식한 지방정부는 그 같은 정책을 헌신짝 버리듯 내다 버렸다. 그 결과 제주 전역이 발전소가 됐다. 제주 전역에 속병이 도진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돈 많은 삼성중공업이 떠난 것은 토착 자본이 빈약한 제주 입장에선 분명 아쉬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돈 때문에 '제주의 가치'까지 희생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과 정책이라도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업과 정책은 절차적 정의는 물론 '결과의 정의'까지 잃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상인들의 역사

활기 가득한 시장 속 삶의 이야기

20여 년을 수산물과 함께 한 「우리 회 수산」

장 성 훈

글 주식회사디자인플레이





동문시장은 제주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제주시민들과 함께 상업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특히 제주도의 수산물 판매라는 특화된 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최상의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역동적인 하루하루를 만들며 시장의 역사가 되어 온 상인들의 삶은 제주의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왔다.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993년 4월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시장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서 종일 일하다 보니 성격도 외골수로 변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경영 공부도 더 하고 이런 저런 경험들도 쌓고 그러면서 가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엔 장남이니까 단순히 도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업을 이어가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시장과 함께 하셨는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들려주세요.

지금이야 튼튼한 아케이드가 만들어지고 상가들도 정돈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

지만 초창기만 해도 천막으로 비만 간신히 가릴 정도의 열악한 상태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통로가 너무 비좁아서 바닥에 진열된 좌판들을 피해 다녔으니까요. 그때는 노점들이 많았어요. 도매시장서 물건을 떼 오거나 서부두시장에서 직접 받아와서 파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육지 가서 물건해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김이나 소금, 공산품들을 사와서 여기저기 자리를 잡아 팔았습니다. 지금이야 주차장도 생기고 시설도 좋아지고 관광객도 많이 늘었지요. 전에는 상인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야 하나 좀 무뎠었는데 경쟁상대인 마트들도 많이 생기고 상인들도 물건 사려면 직접 소비자가 되니까 변하더라구요. 상인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경영이나 손님응대에 대해 교육도 해주고 다른 사업장들 이야기도 들립니다. 장사만 하다보면 우울 안 개구리가 요. 이렇게 배우면서 상인들도 성숙해지고 시장도 말끔해지니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이심전심 - 소통(疏通)

제주의 바람, 그리고 바다



계절별로 어떤 종류의
수산물들이 많이 나오나요?

봄·여름에는 아무래도 바지락이나 키조개, 홍합 같은 조개류가 많이 팔려요. 전복은 사계절 내내 나가는 거고 가을·겨울 되면 방어나 히라스 같은 횡감들이 잘나가요. 이제 다 국산이죠. 일본 쓰나미 때 물류가 많이 변했어요. 당시만 해도 어패류는 일본산으로 수입해서 팔았는데 사고 이후 거의 국산으로 대체 되었어요. 그때는 수개월간 수산물 매출 자체가 뚝 떨어져서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것이 결국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물은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더구나 올핸 더워도 너무 더웠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시장에 활기가 돌 겁니다.

장사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을 텐데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나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장사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지니까 그만큼 일들도 많죠. 요즘은 배달 일들이 많은데 약속시간에 도착해도 가게 문이 열어 있지 않으면 상온에 두고 올 수도 없고 난처하죠. 그렇다고 기다리면 다른 가게에 배달이 늦어지니 그쪽에 피해가고 수산물은 싱싱함이 생명인데 어렵죠. 더구나 제주는 섬이라 태풍이라도 오면 물건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장사하면서 다양통성이 생겨지는데 자연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무섭습니다. 나리태풍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워낙 피해가 컸잖아요. 시커멓고 더러운 흙탕물이 시장으로 들어차서 물건뿐만 아니라 냉동고 같은 기자재까지 전부 잠겼습니다. 화장실 오물까지 넘치고 그



물에서 물건하나라도 건져 보겠다고 들어가서는 애를 쓰고 여차피 쓰지도 못하는데 사람 마음에 하나도 건져보려고, 그 흙탕물 다 뒤집어쓰고 입으로 눈으로 전부 튀어 들어가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전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그렇겠지만 비슷한 업종에서 살아남으려면 성실하고 정직해야하죠. 내가 사먹는다고 생각하고 장사합니다. 소비자는 좋은 물건 사고 상인은 제대로 된 물건을 제값 받으면서 장사하면 됩니다. 싱싱하고 좋은 물건으로 대접해드리고 그런 정성 아셔서 다시 재방문 오시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관광객들 중에서도 우리 집 음식 먹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하면 신이 나죠. 횡감뿐만 아니라 새우나 멍게, 조개류 등 여러 수산물을 취급하니까 신선한 해산물들이 저렴하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다의 수온변화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선들이 나가도 어획량이 많이 줄고 어종도 변해 가고 있어

요. 올 여름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바다도 수온유지가 안되는거죠. 방어나 히라스는 전부 위로 올라갔다고 하고 자리는 뭐 말 할 것도 없어요. 안 잡혀요. 성게만 해도 작년보다 30% 정도 채취량이 줄었는데 수온 때문에 잘 자라지를 않아서 잡을게 없고 오분자기는 거의 사라져서 한두 개 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수온차가 조금만 나타나도 바닷속은 민감해서 바로 반응이 나와요. 해마다 환경오염이니 기온변화니 이런저런 이유로 어종별로 확실히 어획량이 줄어 들고 있어요. 바다를 하나의 큰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거죠. 최근 바다가 많이 걱정됩니다. 오염도 많이 되고 기후변화도 무섭습니다. 한번 상한 바다는 회복하기 어려우니 잘 지키고 아껴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

한번 상한 바다는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잘 지키고 아껴
함께 잘 살아 갔으면 한다.

”



제주도와 미래해양전략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선택

글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

해양강국의 정의는 “자국 해양력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한 해양강대국”이다. 여기에는 국제 우위의 선진 기술력 확보 해양과학기술 우위, 자원고갈시대에 국제적인 자원난에 대비하는 자원 및 자원공간 확보, 해양산업/해양정책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 국내외 해양 이슈 선도로 국제 해양정책 선도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섬이면서도 위와 같은 국가해양력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해본다.



첫째, 제주도민의 해양의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제주뿐 아니라 한국 자체의 바다에 관한 인식은 의외로 낮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때만이 국가해양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 바다에 관한 높은 의식과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종합적 지수는 의외로 ‘아니다’ 이다.

둘째, 섬으로서의 제주의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에 달린 섬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나아간 섬이다. 한반도의 도서군 개념이 아닌 북서태평양 북단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침강섬이 아닌 유수의 태평양 화산섬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섬이라고 다 같은 섬이 아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한반도 유일의 화산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제주해양의 힘은 오션 소프트파워이다. 물류, 항만, 조선, 원양어업 등의 오션 하드파워는 부산 등에 비하여 비교가 불가하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파워로 바라본다면 문제는 다르다. 항만, 조선, 물류, 해운 등 전통적 오션하드웨어는 제주와 불일치한다. 즉 해양수산부의 등의 해양정책과 제주도의 입지는 다르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섬에 입각한 해양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전히 중앙정부의 전체 한반도 정책에 복속되어있다.

넷째, 그렇다면 오션 소프트파워의 어떤 분야에서 제주도가 잠재력을 지닐까.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축제, 해양문화예술, 해양미디어(영화, 다큐멘터리, 방송 등), 해양음식(레시피 개발),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문화 등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제주 고유의 해양콘텐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나칠 정도'로 '해녀 문화'에만 경도될 필요가 없다.

- 어로기술문화: 원담

- 소금문화 : 빌레 소금 등
- 해녀문화
- 조선문화: 테우 등(덕판배 복원 등)
- 무형문화: 굿, 신화, 물통, 용천수 등
- 유형문화: 연대, 읍성 등

다섯째, 제주도 해양전략의 과제는 제주 고유의 해양전략을 세워야하는데 제주 자체의 해양전략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전국적 글로벌적 해양전략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전략 정책전문가 양성 및 제주민의 해양의식 고취가 급선무다.

여섯째, 제주해양의 인프라는 해양도시의 변모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가능하다. 워터프런트의 재생과 경관의 변화, 해양도시의 재생과 새로운 도시로의 변모 등이 그것이다. 요트와 크루즈 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도 해양도시와 연관된다.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 미술관/ 아쿠아리움 등 해양인프라의 확산, 항만 자체의 설계에서 오션 소프트적 요소 가미 등이 요구된다.

국립 제주해양박물관 설치를 위한 범도민

적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에만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으나 인천시가 유치운동을 적극 벌여서 이미 많은 진척이 있다. 제주도에는 사설(수족관) 이외에 소규모 전문박물관(해녀)이 있을 뿐이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제주에 생겨야한다.

육지 중심의 과거에서 해양중심의 미래로 나가야 한다. 과거 제주도의 그릇된 정책, 즉 조선시대의 바다 천시화 정책은 오늘날 까지도 일부나마 잔존한다. 바다를 무시해온 낡은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제주의 잠재력은 무한대이다. 그 무한대의 잠재력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것이 제주도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분의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 바다에서 미래를 보다

글 박창범 /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제주도민은 「제주 바다의 활용가치」 하면 무엇을 연상할까?”

풍부한 어족자원, 해조류, 패류 등이 서식하여 수산업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일까? 크고 작은 섬들과 어울린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관광산업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일까?

이 질문에 대해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이영돈 교수는 제주 섬과 제주 바다가 만든 염지하수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이용하여, 음료, 소금, 화장품 소재로서의 제조업 육성뿐만 아니라 염지하수의 청정성과 항상성(수온 16-18℃ 등)을 활용하여 농·수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월간 한국인, 2017).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해양생물 산업과 비교하면서 제주의 대표 해양 생물(옥돔, 다금바리, 톳, 전복 등)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BT가 미래다-제주에 불어 닥친 제4의 물결, 2005).

위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는 제주도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제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1.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에 활용 가능한 해양 생물자원
(출처: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이영돈 교수 연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이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건강, 에너지, 환경문제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소개하였고, 2006년에 바이오 경제(Bio-Economy)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 2011년부터 해양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해양 바이오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OECD, 2012).

우리나라도 2008년도부터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바이오산업 예산의 부족(주변 선진국의 5~25% 수준)과 인적·기술적 한계(해양수산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주변 경쟁국의 약 50%의 기술 수준)로 인해 단기간 내 성장 개별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가 반드시 상용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의해 중소기업 등의 민간참여 및 투자·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화 연계 가능성이 저조한 실정이다(해양수산부 2014).

따라서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을 육성, 지원 및 투자, 산업화 연계성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개발, 국내·외의 연구 협력, 규제 및 제도개선, 국민 서비스 전달(실용화) 등을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 과학기술 현지 인프라(협력 네트워크 등)를 최대한 활용, 국내 산·학·연(해양수산부 포함)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국제협력 연구 기반의 수요 지향적 연구 분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협력 지원강화, 연구 협력 지원강화, 산업계 지원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협력 지원강화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해양 수산 주요기관과의 지속가능한 전략적 정책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연계된 국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정보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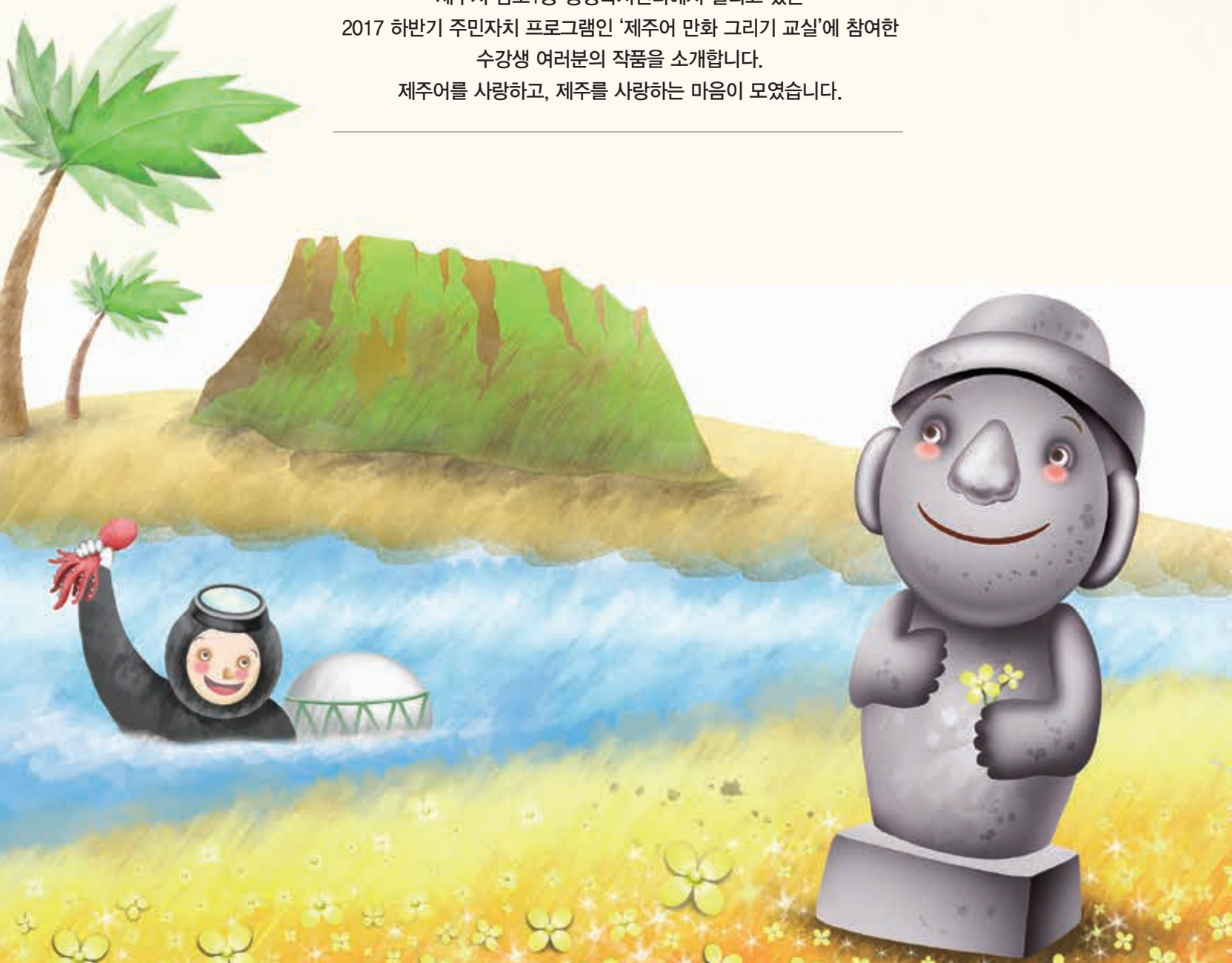
연구 협력 지원강화는 주변 선진국의 해양수산 과학기술정보 모니터링 등 국제 협력 연구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연구기관 활동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연구기획 기능 강화, 국제 R&D 참여, 전문가 양성 등 국제 협력 인프라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 및 인프라를 개발, 원천기술 선진화의 기반 마련 등으로 산업계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수요자별 기능 전문화, 이의 통합 연계로 정책개발 및 민간 기업 투자·지원이 대량성과 도출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기림을 쫓미지게 보멍 제줏말 훈디 곤곡 씨어보게마씀

제주시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7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제주어 만화 그리기 교실'에 참여한
수강생 여러분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제주어를 사랑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기림을 주미지게 보멍 제곶을 훈디 곤곡 씨어보게다솜"
제주어 기림 사진 만화 이왓

곤곤흔문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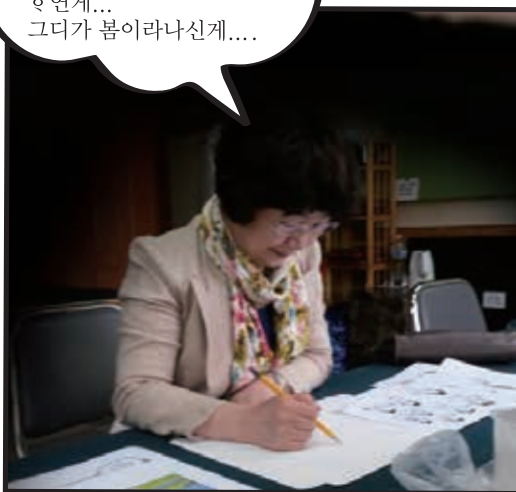
글쓴이 김민영
 만든이 문민희



푸룻푸룻흔
 봄 드르이 나섬시난
 몸이 게베운게...

이 모신탕이 제취 하간디가
 막 청정흔여부난이주게.

오늘 난 어디 가보카
 흔여보앗자 가보젠 훈디가
 웃어부난 그디가 어딘신가
 흔연게...
 그디가 봄이라나신게....



벗꽃,
 유채꽃!-



오-
 영산홍!-

지주에 밧돌담-
 오물락조물락흔
 모냥새가 꽃 닦아
 곱닥흔게.



이디에 제라흔
 우리 무궁화가 이신게.
 너미너미 곱닥흔게.
 이추록도 무궁화가
 고우카이-



꽃자왈!-



기림 : 그림
 주미지게 : 재미있게
 보멍 : 보면서
 훈디 : 함께

곤곡 : 말하고
 이왓 : 이야기
 씨어보게마솜 : 써봄시다
 곤곤흔다 : 매우아름답다

예청 : 여편
 드르 : 들판
 게벵다 : 가법다
 지주(제취) : 제주

모신탕이 : 모두
 곱닥흔다 : 곱다
 모냥새 : 모양
 꽃 : 꽃

오늘 : 오늘
 웃다 : 없다
 그디 : 그곳
 제라흔다 : 멋뻐하다

너미너미 : 너무너무
 이추록 : 이렇게

이심전심 - 소통(疏通)

제주어 기림 사진 만화 이완

"기림을 주며 지게 보양 제맛을 호디 공작 써어보게다"

제주어 기림 사진 만화 이완

씨레기덜
재산주메

글쓴이 전 호 숙
만든이 김 종 수



아고!
이츄록-

살려
줍서게.



이 문독덜
저프게
떼껴부런!



흠도헬저!



나냥으로
어떻 흥여봐사
데켜.



줄바로
모되야지

기여,
잘 흥염저.

영 흥여사
막음 소곰이
선선
흥주기계-



어떤 디 강 보민
츄말 문독덜이 널부러져
이서부난 사름덜이 너미 막음이
아팡흥주기.
씨레기를 잘 모두아 보민 빈직빈직흥여.
츄말로 씨레기에게 딱뚫흔 막음을
주민 그추록 떼껴분 거 막
재산이 뉘연 오메.
씨레기 소곰이 보물이 이신걸
틀람주이-



씨레기도
나가 잘 옷좌주민
나라 재산이 뉘주게.

이츄록 : 이렇게
문독 : 이것저것을
쓸어모은 쓰레기
저프다 : 놀랍다

떼끼다 : 집어 던지다
흠도헬저 : 나무라며 하는 말
나냥으로 : 나 자신의 힘으로
줄바로 : 똑바로

모도다 : 한데 모으다
기여 : 그래
츄말 : 정말
널부러지다 : '죽다'의 낮은 말

사름덜 : 사람들
너미 : 너무
막음 : 마음
씨레기 : 쓰레기

빈직빈직 : 번들번들 윤이 나
는 꼴
딱뚫하다 : 포근하다
소곰 : 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드림제주 21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제라흔 정책,
꺄찌 멩글어 보게마씨**
2017 제주정책박람회가 열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언 제 : 2017. 10. 28.(토) 14:00~21:00

어디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마당



각양각색
창조(創造)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
하다







대중관광을 넘어 오버투어리즘의 시대, 제주관광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글 강성일 /

관광학 박사,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마을연구소소장

경제적으로 관광은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특히, 관광 활동이 지역에서 기존의 생산요소나 잉여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영향이 적은 청정산업이라는 가정이 널리 받아들여진 상황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관광지 관광리더십은 최대 관심사항은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없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관광기업과 지역주민은 관광성장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광객 수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한다.

하지만 관광객 수 증가를 중심으로 한 관광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수용력’, ‘한계’, ‘지속가능성’, ‘삶의 질’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하고 있고, 관광을 보는 고전적 시각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역사회는 이제 ‘관광은 과연 청정산업이고 관광이 성장하면 지역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관광명제와 이를 신뢰하고 견인했던 관광정책과 관광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주도민의 관광과 관광리더십에 대한 고정관념 변화를 촉진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려니 하더라도 2010대 들어 제주관광의 급속한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에는 2000년 약 500만 명에서 2009년 800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300만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대를 보면 2010년 900만 명에서 2016년 1,500만 명으로 7년 동안 이전 10년 기간의 2배인 600만 명이 증가했다.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그와 맞먹는 정도의 숙박시설 등의 관광시설 공급의 증가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고전적 시각에 따라 지역사회는 이를 성장이고 발전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도로와 투지공급, 상하수도, 오페수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기반 인프라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고, 뒤이어 관광젠트리피케이션, 자가상승, 교통

체증, 난개발, 환경오염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악화가 따라왔다.

관광과 지역이 관광객 수가 적었을 때는 서로 배타적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접촉빈도가 낮아 간섭이 적었지만, 관광성장이 급격한 성장은 관광지에서의 그 만큼의 활동공간의 확장이라는 공간변형을 도모했고, 결국 관광객과 지역사회는 한정된 공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단지 관광이라는 부분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의 교통, 토지이용, 인구변화, 경관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된다.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의 갈등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그간 관광성장과 개발에 집중한 고전적 관광리더십은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제주의 관광리더십은 어떤가? 고전적일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행위를 견인하는 역할로 갈등의 한 가운데에 서 있지는 않은가?

2010년대 들어 제주에 나타나는 급격한 관광성장에 따른 문제는 단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파리, 뉴욕, 베니스, 바르셀로나, 산토리니,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구미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제주보다 3~4년 앞서 유사한 문제가 목도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은 이러한 관광변화를 상징하는 용어로 부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선진 관광지의 관광리더십의 변화방향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제주에도 유용할 수 있다.



각양각색 - 창조(創造)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하다



선진 관광도시의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리더십의 특징은 먼저, 관광의 문제는 관광이라는 부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에 기저해 관광리더십의 방향설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로셀로나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관광만이라는 좁은 시각보다는 관광을 포함한 다른 경제부문, 교통, 환경, 복지, 교육, NGO 등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한 '바로셀로나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구성은 바로셀로나 시장의 주도적 관광리더십 발현의 결과이며, 바로셀로나 관광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집행에 있어 바로셀로나 시장은 이 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바로셀로나 관광리더십에서 주목되는 다

른 한가지 측면은 시민들이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다면적일 수 밖에 없는 관광과 관광 성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록 법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지만 관광협의회에서의 논의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인터넷 동영상 중계를 통해 여과없이 바로셀로나 시민들에게 중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바로셀로나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정책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회적 압력의 형태로 정책에 반영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광리더십을 실현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오버투어리즘 시대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오버투어리즘 시대 바로셀로나를 포

함한 파리와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 선진 관광도시들에서 목격되는 공통적인 관광리더십 중 하나는 관광이 지역의 수용력 한계를 이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한 법·제도적 실천을 통해 지역의 통제권이 관광산업이나 외부 개발세력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점이다. 파리 구시가지 거리의 경우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거리의 1층 상가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관련 소매점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기념품점 운영을 법과 제도로 강제하고 있다. 베를린이나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지가상승으로 지역주민이 떠나 밤이되면 활기를 잃는 구시가지에서는 주택을 에어비앤비 등을 위한 숙박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거나 신규 호텔신축을 불허하고 있으며, 바로셀로나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재래시장에



“

오버투어리즘, 과연 선진 관광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에서도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를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



특정 인원 이상의 단체방문객의 방문을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 일정시간에는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제주의 관광리더십은 여전히 관광문제를 소수의 전문가와 정책당국자가 결정하는 전체가 아닌 부분인 관광만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오라관광단지를 비롯한 관광개발의 문제는 투자와 관광, 제주2공항은 항공 등은 관련 소수전문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등 고전적 관광리더십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다른 이름의 지역개발도 결국은 관광개발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상황은 유사하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투자유치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관광개발업자와 이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소수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과

연 변화없는 관광리더십으로 현재의 제주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버투어리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

제주보다 앞서 급격한 관광성장과 오버투어리즘 문제와 직면한 주요 선진관광지들은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공통점은 관광을 관광이라는 부분이 아닌 지역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과 유사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입하는 쪽으로 관광리더십을 실현한다는 점은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앞으로의 제주관광리더십의 전개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면
”

글 전혜민 부대표 / 여행기획자 협동조합 위드



‘여행’ 그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마냥 좋다. 우리는 항상 여행을 꿈꾸며 평생을 여행만 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이렇듯 우리에게 여행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각인되어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즐거운 여행으로 인해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어 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공정한 것일까?

‘공정여행’,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직한 말일 것이다.

‘여행’ 앞에 ‘공정’이란 단어가 더 붙었다. 왜일까?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굳이 ‘여행’이란 단어 앞에 ‘공정’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여행’이란 공평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일까?

사람들은 여행자들이 많이 오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살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현지에 머물러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또한, 환경오염과 문명파괴, 노동권 문제 등 여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쓰레기, 소음, 사생활침해, 주차문제 등 여행지의 주민들은 심각한 생활의 불편함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는 현상인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 여행, 착한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이라고도 불리는 공정여행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행자들만이 행복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지의 주민들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그런데 공정여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착하게 여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할 때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나 걷는 여행을 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보려 하지 않고 한곳에 오래 머무는 여행을 한다면, 핸드페이퍼 대신 손수건을 이용하고 개인 텀블러를 챙겨 다니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행지의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 대신 민박집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민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한다면 여행을 통한 이득이 여행지에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여행지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배려해 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더 나아가 현지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여행지의 주민들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여행이 즐기만을 위한 나만의 여행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곳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세히 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여행기획자 협동조합 위드의 공정여행

여행지의 자연과 문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여행을 통한 이득이 여행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행.

그래서 여행자만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여행지의 주민들도 모두 함께 행복한 여행.

이것이 여행기획자 협동조합 위드에서 추구하는 공정여행이다.

위드의 구성원(조합원)

제주 토박이와 제주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게 된 여성들이 모여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함께 공부하며, 보다 의미 있는 체험과 교육, 공정여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주의 진짜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 제주의 환경을 소중히 합니다.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손수건, 텀블러 이용)
 - 여행지의 쓰레기 줄이기

- 저탄소 여행 추구(이동 거리 최소화)

-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여행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 제주의 사람을 소중히 하고 지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 현지의 숙소와 식당 이용하기

“
제주 관광,
다시
생각해 볼 때”

글 김창집 / 소설가, 제주작가회의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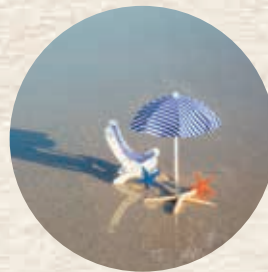


천만 멍도 부족하여벤 관광객

지난 3월 15일 샤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쏘찌기 지시헌 '한국여행금지' 때문에 여행업체덜 이 죽어지켄 하여벤선계, 경해도 9월 들멍 제주를 좇인 관광객이 1000만 멍을 넘어삿젠 하난 그나마 다행이라마썸.

경하난 도 관광협회 관계자가 '앞으로 1000만멍, 1500만멍이엿 혼 수정¹⁾을 어떤 관광객으로 채우느냐가 과제'엔 하여멍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이시난 향후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거'렷 좋아십디다.

게메마썸. 그 동안 우리 제주에선 주먹구기식으로 관광객만 오문 잘 살아진멍 하여멍 드러²⁾ 하영만 오랜 하여신디, 이번 일을 ㄱ리³⁾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고, 어떤 식으로 하여샤 주민덜신 디 이익이 골고로 돌아가코도 따주와 보멍, 새 정책을 세와샤 흡니다.



관광객덜신디 '집이 가불렷' 하는디

'베네치아'엔 혼 디 알아지쿠강? 저 이탈리아에 이신 '물의 도시'마썸. 아, 영어로 좋아샤 알아 먹으쿠강? '베니스'마썸. 뉴스에 나온 사진을 보난 크큰 혼 크루즈 유람선이 들어오느디, 하꼬만 혼⁴⁾ 곤돌라 탄 주민덜이 오라이 모다들언 막암십디다.

스정을 알아 보난 베니스시 주민은 약 5만멍인디 하를에 관광객이 평균 6만멍이 온뎡 하난 말 다하여십주게. 사육제(謝肉祭) 골은 축제 기간엔 세계에서 17만멍이 몰려든 헐어마썸. 어떤 관광객덜은 운하를 아외 수영장 정도로 알앙 수영복 입엿 소리 질르멍 팡당팡당 뛰어들곡, 누게가 베리든 말든 오줌도 작작 골긴덴 하난 오죽하쿠강. 경하고 산마르코 광장 골은 하꿈 널른 디션 바닥에 무신거 쫄앙 가스레인지로 요리도 하여먹는 사름이 신 생이라마썸.

시민덜은 '공중도덕 지킴이'로 나샤 뵈자 관광객덜이 말도 안 들고, 도시 수입이 늘엿 좋을 거 닥주마는 실지로 수입을 보는 사름은 한정뉼고, 세금을 거둔뎡 하주마는 누누아주는 것도 아니난, 불만이 터져나온 겁주. 주민덜은 동네가 망가지고 집값만 올란 세금만 하영 내젠 하난 사는 게 심들덴 하여 멍 이디저디 '관광객덜 집이 가라' 하는 격한 글을 썸 붙엿젠마썸.

주민덜은 사름이 너무 하부난 걸어뎡기는 게 지옥 골으덴 하소연을 하여가난, 시에선 주민덜 삶의 질을 보장하곡 관광객 수도 조절하켄 하여 멍 도시 입장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네스코에선 지나친 관광산업으로 베니스의 역사 문화가 훼손뉼엿젠 '위기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려사켄 올려대엿젠마썸.

1) 수정 : 숫자.

2) 드러 : '마구, 거꾸, 쉬지 않고, 자꾸, 이어서' 따위의 뜻.

3) ㄱ리 : 여기서는 '기획, 계기'의 뜻.

4) 하꼬만하 : 조그마하다.



서울에서도 경험여 가멘

이런 현상을 '투어리스트피케이션'엔 합니다. 비단 베네치아서만 경험는 게 아니엔마썸. 아이슬란드, 런던, 베를린, 프랑스, 마요르카 등 세계 도시덜이 관광 목적지가 됴명, 관광객이 도시의 주연 노릇을 하곡 주민덜은 고향을 잃어볼 것 곶은 위기감을 느낌썸주. 그치록 혼 도시가 관광지가 뵤문 그 도시의 모든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마썸.

집값광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르곡, 교통, 씨레기 문제가 말이 아니라 가난, 처암부터 관광지 가 아니라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단 주민덜이 어떤 논의나 토론도 엇이 어느 날 문득 이 녁네가 도시의 주연이 아니라 주민보단 숫자가 늘어난 관광객이 주연 노릇하는 걸 깨돌으멍, 관광객을 '점령군'으로 느낌 그로 인해 야기된 하간 문제에 대한 분노가 솟아낭 '관광 혐오증'이 생기는 거렌마썸.

서울에서도 북촌 한옥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세종마을 등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여가난 구에선 부랴부랴 그걸 검토하염젠 곶암수다. 피해가 한 마을을 중심으로 피해현황을 심층조사하 멍 장기적 관리차원으로 정주환경 보호방안을 마련하염젠마썸.





제주도도 관광을 다시 생각할 때

이젠 관광으로 먹고 산데 하는 우리 제주섬도 놔의 일이 아니우다. 일이 막 터져서 우왕좌왕 하지 말앙 미리미리 대책을 세와사 흡니다. 교통 문제가 대두된 건 어제 오날 일이 아니고, 씨레기 문제광 현장 오염, 환경 파괴도 심각하여져 감수다.

문제를 해결하는 질은 댜 디 엇수다. 양(量)보다는 질(質)로 따주와사 답이 나와마썸. 가는 디마다 와글와글 시끌박작 하는 것보단, 하진 아니 하여도 고급시럽게 놀거나 즐기멍 돈 하영 썸 가는 관광객을 좇는 겁주. 의료 관광이나 휴양 관광, 학술탐사 곶은 맞춤형 관광이 답이 댜어마썸.

요즘 관광 댜겨보문 공정여행이렌 하는 게 이서마썸. 그걸 보멍 생강 혼 건디, 민박이나 펜션 곶은 디 들영 주민덜신디 호꿈이라도 이익이 돌아가게 호곡,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현지주민덜 생산한 물건 사주기, 민속을 좇앙 현지 주민덜광 어울렁 즐기기, 현지 가이드 둘앙 댜기게 호기 등이 그 겁주.

흔 번은 중국으로 백두산 종주를 가신디, 일정한 장소깝장만 관광버스나 승용차가 들어오게 호고, 나머지는 백두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난 지름차는 안 댜고 거기서 운행하는 가스차나 전기차라사 혼 댜 호멍 꼭 그걸 이용하게 흡니다. 또 등산호쟁 호난 열멩에 호나썸 가이드를 붙여야 댜댜 호멍 현지인을 꼭 돈 쥔 둘앙가게 호여마썸.

한라산도 경호문 안 댜카마썸. 호꿈 여유가 이신디 주차장을 멘들앙 일반차를 세우게 호곡, 전기차로 돈 받으멍 출발점깝지 태와 가는 거라 마썸. 경호고 오름 가이드, 4·3 가이드, 곶자왓 가이드, 제주어 가이드, 지질 가이드 곶은 인력을 양성호영 둘앙댜기게 호문 일자리도 창출댜곡, 주민덜 수입도 늘어나곡 좋지 아니호쿠가.



한여름의 섬, 제주에서 울리는 금빛 관악의 소리

글 오수정 / 정책자문위원

스물두 번째 제주국제관악제가 9일간 온 섬을 울리고 8월 16일 막을 내렸다.

이번 관악제는 역대 최고의 예산과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여들었고¹⁾ 행사장소 역시 섬 속의 섬인 추자항 물항장과 가파도 선착장에까지 오케스트라 뮤지션들이 제주섬 전체에 관악의 파장이 울려 퍼지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는 해녀 등재를 기념한 “해녀문화 음악회”와 제주전통문화인 안거리·박거리 문화를 연주형태로 변형하여 중요 연주장소가 아닌 제주의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을 찾아 “박거리 음악회”까지 추가되었다. 전년보다 10개소 이상 늘어난 제주 곳곳 박거리에서 들린 금빛 관악기들의 풍성한 소리는 올 한해 유난스러웠던 더위의 지루함을 음악축제로 대신하여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선사되었던 여름이었다.



처음 제주에서 관악제가 시작할 당시인 1995년 만해도 제20회 대한민국국제관악제를 제주에 유치하면서 부속행사로 열렸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그 규모면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축제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9년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²⁾에 가입된 세계적인 대회인 제12회째 내려오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올해도 많은 참가자³⁾들이 기량을 겨루었다. 내국인인 경우 이 콩쿠르에서 1,2위 입상을 하면「병역법」상 병역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제주콩쿠르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예술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런 콩쿠르가 국제관악제와 동시에 융화된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선사했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1) 국제관악제 개최현황(2016~2017)

구분	참가현황	예산	개최장소
2016년	23개국 2,634명 - 해외 : 11팀 398명 / 개인31명 - 국내 : 41팀 2013명 / 개인19명	850백만 원	16 개소
2017년	22개국 3,744명 - 해외 : 14팀 473명 / 개인 32명 - 국내 : 68팀 3,009명 / 개인 25명	1,230백만 원	27개소



하지만 현실은 외적 모습과는 다르게 20년 넘게 관악제를 이끌어 오면서 예산과 참가팀들만 확대되는 양적 성장에 머물러 있을 뿐, 세계적 명성에 비해 구조적인 과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진행되고 있다.

관람객 없는 오케스트라 향연

장소를 여러 군데 분산시켜 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느끼게 하기 위한 시도는 좋았으나 실제 메인행사를 빼면 실내공연장이라든가, 박거리음악회, 우리동네 관악제 등에는 관람객의 점유율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특히 아트센터인 경우 총 행사기간 9일 중 8일이 공연이 이루어졌지만 국제U-13관악경연대회와 콩쿠르입상자 시상식을 제외하면 가족 외에는 참가하지 않는 나 홀로 공연이었다는 평가 함께 올해 처음 등장한 박거리 음악회에도 거의 관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초청된 공연예술인들과 사전에 계획되었던 공연 횟수보다 추가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어떤 단체는 같은 레퍼토리의 음악이 선보일 정도였다.

실내·외 공연장에서의 관객 점유율이라든가 준비되지 않은 공연의 진행은 고정관객 개발과, 아직 도민들에게는 공연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한 분석에 무심했던 것은 아닌가.

행사진행의 미숙함

예술인은 행사장에서조차 배고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된 음악인들이 행사장에서 최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사 지원이 있어야 했다. 유난히 소나기가 많았던 행사 기간에 도심 외곽에 배치되었던 박거리 공연인 경우 노천 관악공연에 대한 공연자라든가, 관람객들에 대한 우천 대비책도 미비했고, 1년 중 가장 더울 때 치러진 행사에서 행사이동, 음



료 제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 단지 지정된 공간에 음악인을 배치하여 결과만을 보여준 듯한 운영이 아니었었나 생각된다. 그것은 조직 관리와 운영의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관악제를 위한 제언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사무국을 두어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이 국제관악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공을 위한 기획과 진행을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안정된 예산과 조직 관리는 필수이다. 이 때문인지 20여 년 이상 관악제가 공간적 확장 외에는 변화되지 않는 음악축제를 고수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음악축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거점별 공연과 경연만이 아닌 교육과 지역밀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악제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명 음악인들이 올 때 아마추어를 위한 관악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제주를 찾은 관악인을 위한 제주 만나기 등 실제 제주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음악인들이 제주인을 위한 재능기부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기획의 축제장이 되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FIMC,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총회를 개최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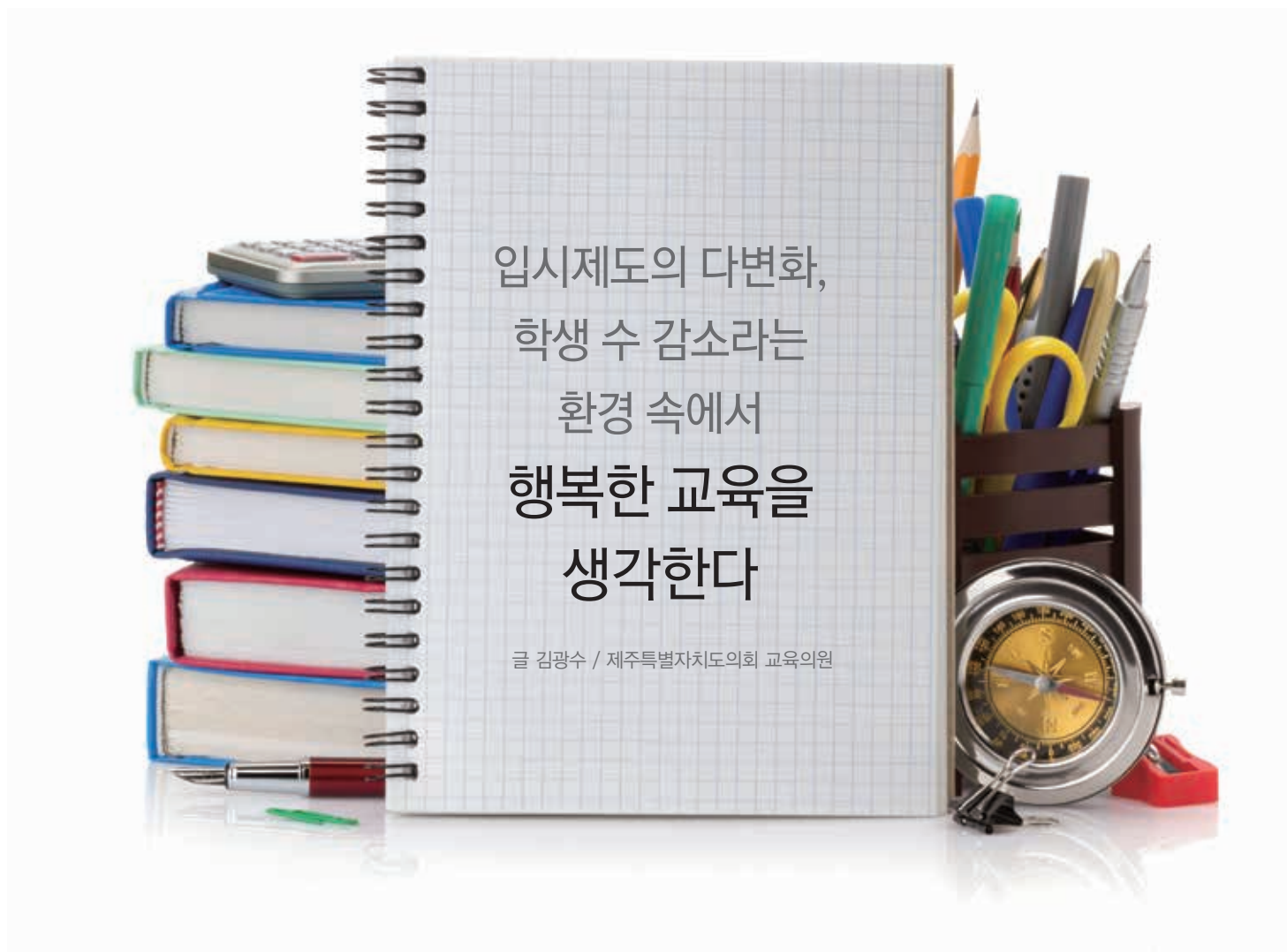
2)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FIMC/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은 UNESCO 산하기구로서 1957년에 창설된 세계 음악콩쿠르의 총본산으로 전 세계 3천여 개 음악콩쿠르 가운데 최상위권인 38개국 125개 단체가 가입했다.

지난 1957년 동서냉전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음악과 예술의 힘으로 녹이고자 유럽의 문화예술 선진국들이 주창하여 창설된 것이다. 창설당시에는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 특별자치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벨기에 여왕, 폴란드 문화성 장관, 독일 바이에른 주지사, 이탈리아 제노아 주지사, 체코 프라하 시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장 등 동서를 대표하는 유력인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동서화해의 기폭제를 제공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클래식 예술인을 육성하는 등용문으로 음

악콩쿠르의 질적 수준 유지 및 문화예술 관련 후진양성이 목적이고, 전 세계 3천 개 음악콩쿠르 중 최상위권에 달하는 125개 콩쿠르에 한하여 가입된 연맹 대표들이 모여 매년 4~5월경에 총회를 개최한다.

3) 국제관악콩쿠르 참가현황(2016~2017)

구분	참가자 수
2016년	173명 (국내 56명, 해외 117명)
2017년	205명 (국내 109명, 해외 96명)



입시제도의 다변화, 학생 수 감소라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교육을 생각한다

글 김광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법 가을의 전령사들이 생활 속까지 스며드는 계절인데도 현행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논란의 경계는 아직도 구분이 안 된다. 한 번의 선택이 '대학의 급'을 정하고 '인생의 급'을 결정짓는 제도 속에서 해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고 신입생 선발 방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로의 전환도 쉽지 않아서 발표를 미룬 모양이다. 특목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선발 전·후기 통합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일까? 과연 행복한 교육 시대는 올 것인가?

바람직한 교실 수업의 출발은 평가에서 시작된다. 평가는 교사의 반성자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교사나 학생이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사는 수업 내용의 성취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등급을 내고 줄을 세우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학생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대평가' 환경이 조성되면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서술형 평가를 하려 할 것이다.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는 교학점제도 절대평가, 즉 목표지향평가 체제가 돼야 실현 가능한 제도다. 절대평가 체제가 되면 교사는 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평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교권이 확립되며 존경받는 선생님이 된다.

요즘 들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사 수는 늘어난다고 말들이 많다. 만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수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후진국이 된다. 지금 35명 전후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낮출 수 있다면 교실에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고 기초자부터 영재까지의 수업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교사수를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은 결코 소모적 투자가 아님은 교육선진국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학업에 지쳐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생각보다 낮아 보인다.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 인구 5000만 명으로 다양한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킨 나라, 한류로 통칭되는 매력 있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드라마 하나로 중국대륙을 흔들었으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해외 대학이 1200곳에 가깝고 세종학당이 54개국에 진출한 국가임에도 그렇다.

세계한류학회 주최 한류에세이 콘테스트에서 팔레스타인 소녀 마이사 사미르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살아가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는 믿음, 다른 하나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라는 믿음입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구의 절반은 순교자이고 또 절반은 난민으로 여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한국 드라마는 제 마음을 가득 메웠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들, 존경과 용서를 그 소녀는 마음속으로 읽고 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이처럼 느끼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교육 여건 개

선이다. 그 시작은 교실 당 학생 수를 줄이고 평가의 방법을 고쳐서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금지와 자부심을 교육하는 것이라.

25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맞춤형 수업을 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서열이나 등급 중심의 평가에서 해방시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다. 매일 새로운 제도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을 읽고 듣지만 과감한 변화는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

가을의 불청객 탈모

글 고태현 / 신제주한의원 원장

“

정결한 두피와 모발관리 중요,
충분한 휴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해야

”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이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평소 탈모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보통 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가을이 되면 그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마련이다. 가을에는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로 인해 두피의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무너뜨려 각질이 유발되게 되며, 여름 동안 열대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두피 손상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증가된 피지 분비 등이 두피의 염증을 유발하여 모발의 탈락량이 증가하게 된다.



모발은 보통 3~5년 자란 후 빠지고 3개월 후에 빠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는데 이러한 정상 모주기 기간을 거쳐 탈락하는 자연 탈모는 하루 50~100개 사이이다. 만약 하루 동안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지거나 두피가 가렵거나 이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면 탈모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성장기 모발보다 휴지기 모발의 경우 탈락 강도가 낮으므로 50~70개의 모발을 두피 바로 위에서 부드럽게 잡아당겨 보는 방법으로 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 5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모주기가 짧아져 탈모가 진행되는 원인에는 유전, 남성호르몬의 과다분비,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면역력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원인으로 탈모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부터 알아보자.

우선 정결한 두피와 모발 관리가 중요하다. 특별한 샴푸보다는 올바른 샴푸법이 더 중요하다. 하루 종일 외부에 노출된 모발에는 먼지, 매연, 환경 호르몬뿐 아니라 땀과

피지 같은 노폐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침보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 속까지 충분히 적셔주고 손톱으로 두피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샴푸나 린스의 화학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헤어드라이어 보다는 자연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으며 모발보다는 두피부터 말리는 것이 좋다.

탈모의 가장 큰 적은 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다. 탈모의 진행연령이 낮아지고 탈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연령대가 30대, 20대 순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각종 스트레스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에 열이 조장되고 이런 열은 위로 상승하여 두피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쳐 탈모를 진행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쌓아두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 전신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체지방을 낮춰주는 것이 좋다. 체지방률이 높다는 것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체내의 불필요한 노폐물인 습(濕), 담(痰), 습열(濕熱), 어혈(瘀血)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습, 담, 습열, 어혈이 체내에 많아지면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탈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서양의학에서 역시 비만을 일으키는 동물성 단백질로 인해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탈모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로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두피에 혈액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아 모발의 생장을 방해한다고 본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모발에 충분한 영향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포화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되어 남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탈모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녹차 가루, 다시마, 검은콩, 견과류, 미역, 브로콜리, 등푸른생선 등을 자주 섭취해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탈모가 진행 중인 경우 지나친 두피 자극은 피지를 더욱 분비되게 만들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어깨의 승모근, 흉쇄유돌근 등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족두부와 목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정도로 해서 심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청이와 령이의 청렴 이야기



글/그림 식품원예특작과 홍성보





제주 감귤, 성장기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글 이경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수명주기가 있어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탈락되고, 결국은 산업의 재편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우리 제주 감귤의 수명주기는 어떠할까? 계획생산 초기인 1962년의 경우 재배면적 318ha에서 831톤을 생산하여 1억3천3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1970년대에만 해도 재배면적 5천ha, 생산량 5천톤 규모의 소규모 작물에 불과했던 감귤은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재배면적만 2만5천ha로 5배나 커지면서 명실상부 국민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대를 정점으로 국내·외의 여건에 의해 재배면적의 조정되고, 가격이 하락되면서 감귤산업이 쇠퇴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까지 물량위주의 감귤 산업은 쇠퇴기를 맞은 것이 분명하지만, 당도를 비롯한 품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2013년산 노지감귤의 출하인데, 55만톤의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526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조수입을 기록하였다. 이 배경에는 감귤 맛이 너무 좋았다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있었다. 즉, 지금까지 물량 중심의 성장을 해 오던 감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며, 도정에서도 그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2일, 당도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노지 온주밀감의 상품은 49mm 이상 70mm 이하로 제한

되지만,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당도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광센서 선별기 공급의 적정성이 이번 감귤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감귤정책 변화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현재 41개소에 설치된 광센서 선과기의 처리물량이 70%의 가동률을 적용해도 생산량의 46% 수준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유통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과 유통인들이 고비용의 광센서 선별기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들을 위해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상당한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기존 드럼 선과방식을 광센서 선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과거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로 감귤산업을 새로운 성장기 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농정의 현실적 대안과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10브릭스 균일당도 감귤 생산관리체계 연구와 지도 중요

글 현진성 수석부회장 /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지난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7년 상반기에 8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오는 2020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라는 제주도 감귤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동안 지름 49mm 미만의 감귤은 '비규격 감귤'로 정해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하여 2020년 말까지 내수 지역으로 유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크기는 작고 가격은 더욱 저렴한 감귤을 가정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울러 감귤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도 접했다. 지금까지 감귤 정책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 완전경쟁 시장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감귤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 제주의 생명 산업이라는 감귤 정책을 담당하는 제주 도정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를 보면 감귤 소비자와 생산 농가의 동상이몽이라 생각된다. 현재 도외로 유통되지 않는 비규격 감귤의 가공용 가격으로 저렴하게 소비자들

이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산 농가에서는 규격 외 감귤 출하는 일반규격 감귤과 비슷한 가격을 받아서 수익이 높아진다는 기대감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번 발표가 비규격 감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되는 부분을 일반소비자 가정에서 맛본다는 것인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

이 구매를 원한다는 것을 파악한다면 어느 감귤 농가가 비규격 감귤을 출하하겠는가? 일부 정책담당자, 몇몇 농가들은 감귤 정책에 치여서인지는 모르나 시장 흐름에 맞추어 시간이 지나면 생산패턴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희생은 누구의 몫인가? 농가들의 몫이다.

감귤 생산을 하는 농가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농가들이 정부 정책 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확인해서 시장에 맞게 생산 농가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농업정책이라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귤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금 현재의 고품질(고당도, 깨끗함)정책으로 고가의 감귤을 생산했을 경우 일반 서민까지 소비자로 상대하기가 힘들다. 지금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수량은 국민 과일의 이미지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어야 만이 과잉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전의 생산증대 형태의 생산체제로 하자는 말이 아니다. 균일한 10브릭스 정도의 당도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생산단가 3,75kg당 3,000원~4,000원 정도에 부담 없이 구매하고 소비촉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균일한 10브릭스 감귤 생산이 생산비 증가(예. 타이펙 설치) 없이 가능할까? 나는 다음 3가지 정도만 정리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감귤나무 식재 거리를 넓히는 것이다.

주간(株間) 거리는 묘목 식재 시 단어이고 성목이 되어 관리하면서부터는 수간(樹間) 거리라고 표현했으면 한다. 즉 나무와 나무 사이를 기본 1m를 두어야 생산관리 및 당도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감귤나무 영양분 공급체계이다.

예전 생산증대관리로 인하여 쉽고 편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양공급에서 퇴비 및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을 경우 당이 오른다는 것을 많은 분이 현재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렴하고 고품질의 축산퇴비와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청정 환경의 제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므로 행정에서는 퇴비 및 유기질비료 공급에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방풍림 제거 및 낮추기 작업이다.

예전에 일본 농업지도자가 왔을 때 인솔할 기회가 있어서 제주 감귤원을 둘러보다가 방풍림에 대하여 무척이나 걱

정하였다. 방풍림 관리도 연중 감귤원 작업 중 맨 처음 하는 과정이라는 말에 일본 감귤원을 방문했을 때 잘 정리된 방풍 나무가 떠올라 아무 말도 못 한 적이 있었다. 그분 말로는 방풍림의 목적은 큰바람을 막는 것이지 햇빛과 잔바람을 막는 게 아니다. 햇빛과 잔바람은 감귤 당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제주 경관에 굴림추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방풍림에 막힌 굴림추색 보다는 조경수 같이 관리된 방풍림으로 둘러싸인 경관이 훨씬 더 멋진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하려면 농가들도 변해야지만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비가 증대되는 고품질의 감귤 생산연구와 더불어 생산비가 낮아지는 국민과일로써의 10브릭스 균일당도 감귤 생산관리체계 연구와 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협도 유통 홍보에서 방풍림 제거와 안전안심 농약 방제작업으로 작은 상처과와 병과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홍보활동으로 건강한 감귤 생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도 이와 같이 관광경관에 일조하고 과도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토양오염을 줄이는 농법을 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국민과일로써 제주 감귤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감귤 당도기준에서 일본과 많은 비교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이 당도의 기준과 우리나라 국민의 당도의 기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보다 일본 식제품은 대부분 엄청난 당을 포함하여 일본인들이 느끼는 당도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당도의 차이는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 감귤 당도와 비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요즘 현대 성인병 등으로 천연당도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감귤의 고품질을 너무 당에 목표를 맞추는 게 아쉽다. 유럽에서 감귤 종류의 홍보 시 당도 보다는 갖고 있는 기능성 성분을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천연비타민들을 먹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소비촉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제주 감귤이 갖는 기능성을 보다 적절하게 홍보하여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국민과일로써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주 감귤이 되었으면 한다.



제주형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역할 ‘기대’





제주형 기초연금제도는 그 수급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 가능성 여부, 적정산출액 도출, 노인 일자리 및 고용 활성화에 대한 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지난 8월 4일 김만덕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심경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난 4월 현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 원인이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여파로 수급대상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맞물리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액 산정방식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아직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이 대상자 간 형평성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 기준액은 금년도 기준 노인 단독 119만 원, 노인 부부 190.4만 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복잡성은 현행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까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써 현행소득액 산정방식을 전제로 해결할 형평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은송 전 펜실베이니아 기초소득 담당자는 '미국의 기초소득제도 현황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미국 노인 기초소득제도와 자격요건은 미 연방정부가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지원하는 현금제공 프로그램으로 최대 개인 월 \$735, 부부 \$1,103을 받을 수 있

으며 극빈층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 노인기초소득제도 재산금액을 허용, 물가소득 상승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도 노인장애복지과 박일홍 과장은 세미나 주제에 따른 토론에서 기초연금의 기본취지가 "소득수준하위 70% 노인에게 연금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임에도 현재의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신청자격에서 제외됨으로써 또 다른 노인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논리개발과 중앙절충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등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개선을, 유희원 국민연금부연구위원은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현실화하며 재산 기준을 수급자 친화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는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제주의 여인들

어느덧 하루가 희미한 노란빛으로 물들어 가고 군불 지피는 연기가 낮게 피워 오르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조용히 흙빛보다 더 진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며 나를 보고 지어 주시던 새하얀 미소를 기억한다. 그 진한 흙빛은 제주 여인들의 삶의 고난이었고 그 새하얀 미소는 삶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런 삶의 고난과 이유가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제주의 어머니들에게 다시 대물림되어 보다 나은 삶을 우리에게 물려주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의 어머니는 제주의 여인들은 아름답다.

나의 작품에서는 인물이 하나의 점이나 액세서리처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주제가 되고 풍경은 배경일 뿐이다. 그리고 제주의 모진 환경과 역사를 겪으며 살아온 삶과 희생의 정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다.

예술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랑 없는 예술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예술은 인간 영혼이 창조한 제품과도 같다. 제주 여인들의 강인한 삶 속 일상을 통하여 그들의 일생을 느낄 수 있는 작업으로 제주 희망의 정신을 담고자 노력해본다.

그리고 제주의 여인들이란 작업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들의 숭고한 노동의 고달픔을 어루만져지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 그 삶의 모습이 신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제주의여인들-바당밭

(재료: Oil on Canvas / 크기: 116.8×91.0cm)

제주의여인들-귀로(歸路)

(재료: Oil on Canvas / 크기: 130.3×80.3cm)

제주의여인들-감자케는 날

(재료: Oil on Canvas / 크기: 40.9×27.3cm)



제주의여인들-오후일상
(재료: Oil on Canvas / 크기: 25.8×17.9cm)

고보형

-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서양화전공)졸업
- 러시아 국립 레핀미술대학(상트-페테르부르크)유학
- 개인전 6회
- 김기량(펠릭스 베드로, 1816~1867) 복자 표준영정 제작.
- 서울아카데미정기전(2009~)
- 신미술회정기전(2011~)
- 제20회 제주미술제 선정작가상수상(2011)
- 상하이아트페어 등 많은 단체전 참가.

현/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부회장, 신미술회, 서울아카데미,
제주도미술대전초대작가,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제주문화원출강,



사람과 사람사이 어울림의 공간
제주에서 함께사는 이야기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
배려와 협력의 소통의정,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해야 제주가 행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위 63119 제주시 문연로 13 TEL 064.741.2222 FAX 064.741.1999

붉은 발 말뚝게

시리즈-1

붉은 발 말뚝게와 한 해녀가 도대불에서 제주 앞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①을 보고 그림②에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뒤 쪽에 있음)



①붉은 발 말뚝게 완성 그림



②붉은 발 말뚝게 완성 그림을 보고
없는 것을 그려 넣으세요.

그림 고재만

보내는 사람

□ □ □ □ □

받는 사람

□ □ □ □ □

드림
제주
21

vol.18

엽서 크기 155*104mm

붉은 발 말뚝게

붉은 발 말뚝게는 갑각길이 약 28mm, 갑각너비 약 33mm이다. 갑각은 사각형이고 불룩하며 홈이 파여 여러 구역으로 나뉜다. 눈뿔니 뒤에 1개의 뚜렷한 이모양 돌기가 있다. 이마는 넓고 아래쪽으로 기울었으며 두 부분으로 나뉜다. 눈자루는 굽다.

집게다리의 집게바닥 바깥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모양 돌기가 뽁뽁하다. 걷는다리의 발목마디와 앞마디·발가락마디 주위에는 검은빛을 띤 갈색 센털이 난다. 갑각의 앞쪽과 집게다리의 집게는 붉다.

바닷가나 하구 가까운 습지 또는 숲속에 사는데, 아가미로 호흡하므로 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지낸다. 땅위를 걷는 속도가 빨라 풀밭이나 돌담 사이에도 들어간다. 암컷은 알을 배에 품고, 알이 깨어날 때 바다에 들어가 조애 유생을 바다에 내보낸다. 조애아는 바다에서 자라면서 변태를 거쳐 육상생활에 들어간다.

한국의 남해 서부와 황해 중부 이남을 비롯하여 일본·타이완·홍콩·미얀마·인도 연안에 분포한다. 한국의 경우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강정 해안은 붉은 발 말뚝게의 대규모 서식지이다.

도대불

도대불은 제주에서 현대식 등대가 도입되기 전에 야간에 배들이 무사히 귀항할 수 있도록 항구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던 민간 등대를 말한다.

해안에 암반이나 암초가 많아 천연 포구가 발달하지 못하고 소규모의 포구가 많은 제주도에서 전기가 각지의 마을에 보급되어 현대식 등대가 곳곳에 설치되기 전까지 어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도대불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정답



드림 제주 21

vol.18

